

2021-2022 대전지방기상청 웹진
겨울호 (Vol.26)

e - 날씨 (you)

충청도 구수한 사투리를 반영하여
'e(인터넷을 이용한) 당신을 (you) 위한 날씨이야기가 담겨 있음'을 의미합니다.

2021-2022
대전지방기상청 웹진 겨울호(Vol.26)

CONTENTS



기상청장 기고

- 04 / 겨울철 계절성 우울증, 건강하게 극복하는 법
- 06 / 겨울철 쾌적한 실내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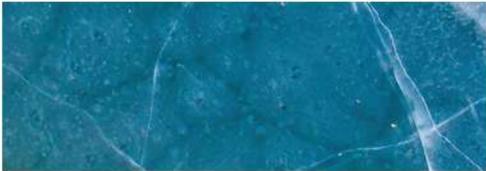


대전지방기상청 소식

- 08 / 2021년 12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 19 / 2022년 1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 27 / 2022년 2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 28 / 관측기록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제38회 기상기후사진 공모전 입선_ 겨울기상도(김상환)



서비스

30 /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 받는 기상청 전자민원

31 / 알기쉬운 민원 신청방법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383 (구성동, 대전지방기상청)

전화 042-363-3599

발행일자 2022년 2월 28일

발행처 대전지방기상청

편집장 박영연 대전지방기상청장

편집/교열 이은영(기획운영과), 박창용(예보과), 이해정(관측과), 정영진(기후서비스과)

편집디자인 김진영(관측과)

웹진기자단 김정수(기후서비스과), 김효원(예보과), 남민우(관측과), 박보연(기후서비스과), 박선영(기후서비스과), 박창용(예보과), 서유미(기후서비스과), 심준수(관측과), 안태건(관측과), 윤영란(예보과), 이정섭(관측과), 장민준(예보과), 최유미(관측과), 홍연주(기획운영과)



대전지방기상청에서 발행한 'e-날씨유,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출처표시·상업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인 목적이나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사진, 일러스트, 이미지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kogil.or.kr

기상청장 기고문 #1 겨울철 계절성 우울증, 건강하게 극복하는 법

왜 여름보다 겨울철에
계절성 우울에
빠지기 쉬운 걸까?

“날씨가 추워지니 몸도 늘어지고 움직이고 싶지 않다.”, “양상한 나뭇가지를 보면 왠지 기분이 쓸쓸해진다.”라는 대화를 겨울의 길목에 한 번쯤 주고받은 적 있을 것이다.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 무력감을 느끼거나 기분이 우울해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증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특정한 기간에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계절성 우울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계절성 우울증은 대부분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시작해 봄이 되면 사라지는 특징을 지닌다. 그렇다면 왜 여름보다 겨울철에 계절성 우울에 빠지기 쉬운 걸까?

가장 큰 이유는 일조량 감소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일조량은 계절에 따라 크게 변한다. 지구는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각 위도별로 받는 태양복사 에너지가 다르게 나타난다. 여름이 되면 남반구보다 북반구에 태양복사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오고 시간도 더 길어져 일조량이 증가한다. 그중에서도 24절기 중 10번째 절기인 하지(夏至)가 되면 남중고도가 가장 높고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 반대로 겨울이 되면 북반구가 남반구보다 태양복사에너지가 덜 들어오고 시간도 짧아지기 때문에 일조량이 감소한다. 마지막 절기인 동지(冬至)가 되면 남중고도가 가장 낮아져서 낮의 길이가 가장 짧아진다. 동지는 양력으로 12월 22일경이며 동지를 지나면 낮의 길이가 점차 길어진다.

햇빛을 받기 어려워진다면 우리의 몸은 수면 사이클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고 멜라토닌과 세로토닌 분비에 영향을 받는다. 감정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낮에 햇빛을 받아 생성되고 밤에 분비가 된다.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 또한 햇빛을 받으면 생성된다. 날씨가 흐려 햇빛을 잘 보지 못하거나 일조량 감소 때문에 햇빛을 충분히 보지 못한다면 멜라토닌과 세로토닌 생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겨울철이 되면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단적인 예로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이 계절별 일조량 차이가 적은 적도보다 일조량 차이가 큰 북유럽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는 보고를 보면 알 수 있다.

계절성 우울증이 나타나면 우리의 몸과 정신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

식욕이 없어지거나 과도하게 증가하고, 매사에 흥미나 재미가 없고,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며, 집중력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력함이 지속된다.

또한 이유 없이 몸이 아프고, 불면증이나 과도한 수면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인관계나 일상에서의 의사결정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겨울철에 더 자주 발생하는 계절성 우울증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 핵심은 햇빛을 받는 것이다.

계절성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이라면 과감하게 이불을 걷고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햇빛을 받도록 해야 한다. 직장인이라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산책하는 것도 좋고 업무 중 약간의 시간을 내어 창문 밖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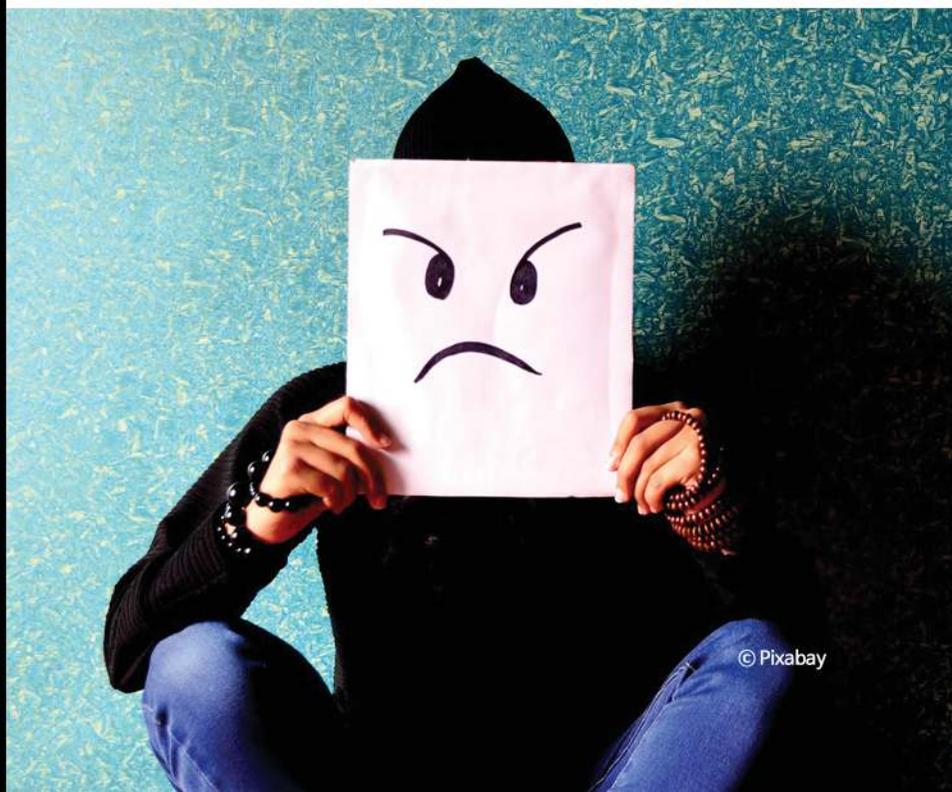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야외활동을 하는 것은 평소보다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방역수칙을 철저히 잘 지키는 선에서 때때로 오프라인 만남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 우울감을 느낄수록 실내에 웅크려 있지 말고 나가야 한다. 잘 먹는 것 또한 중요하데, 규칙적인 시간에 적당한 양의 균형 잡힌 식단을 가지는 게 좋다. 만약에 날씨가 흐려 해가 가려져서 어둑어둑하다면 조명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기상청에서는 자외선 지수를 포함한 다양한 생활지수를 제공하고 있으며 날씨 예보뿐만 아니라 일몰·일출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요즘은 날씨가 춥기 때문에 기상청에서는 수요자별 특성을 고려한 한파 영향 예보를 매일 발표하고 있다. 이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건강한 야외활동 계획을 세워 본다면 좋을 것이다.

기상청은 다양한 생활지수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몰·일출시간도 확인할 수 있다

다행히도 이제 동지가 지나가고 낮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햇빛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점차 더 길어진다. 봄이 오면 날씨가 따뜻해지고 새싹이 파릇파릇하게 올라온다.

우리의 마음은 설레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따뜻한 봄을 기분 좋게 맞이하기 위해 다양한 기상정보들을 활용해 추운 겨울을 건강하고 현명하게 이겨내도록 하자.



기상청장 기고문 #2 겨울철 쾌적한 실내만들기

현대인들은
하루의 약 80% 이상을
실내에서 보낸다
(평일 기준)

최근 '집콕족(집에 콕박혀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영하 10도 안팎을 넘나드는 한파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부 활동에 제약이 따르면서 생겨난 현상으로 보인다. 물론 굳이 감염병 확산이나 겨울 추위와 같은 이유를 들지 않더라도 직장 혹은 학교를 드나드는 바쁜 일상 속에 따로 시간을 내 야외활동을 하기란 참으로 힘든 일임을 많이들 공감할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현대인들은 평일 기준 하루의 약 80% 이상을 집, 학교, 직장 등 실내에서 보낸다고 한다.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느껴지는 이유다.

실내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답답하고 오염된 공기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겨울철이면 실내의 답답한 공기로 인해 호흡의 불편함이나 두통 증세를 호소하는 이들이 유독 많아진다. 히터를 강하게 틀면서 실내온도가 건조해지고 공기가 무거워지기 때문이다. 또 평소보다 내부에 머무르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개개인이 내뿜는 이산화탄소량이 늘어 산소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데에도 원인이 있다.

그렇다면 겨울철 실내에서 쾌적하고 건강한 일상을 보내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까. 세 가지만 명심하자. 첫 번째는 실내온도를 18~20도로 유지하는 것이다. 다소 춥다고 느껴질 순 있겠지만 실내외 온도차가 많이 나면 감기에 걸리기 쉽고 뇌졸중 등 심 뇌혈관 질환에 노출될 위험도 크다. 따라서 다양한 난방기구를 활용하여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또한 기상청에서는 감기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등 보건기상지수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 행정구역별로 뇌졸중 발생 가능 정도와 대응요령을 확인할 수 있어, 이를 잘 이용하면 면역력이 저하되는 환절기나 추운 겨울 건강 악화 예방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실내 습도를 40~60%로 유지하는 것이다. 온도와 습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실내의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지 못하면 안구건조나 가려움증과 같은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쉽다. 반대로 너무 습하면 미생물이나 곰팡이균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다. 습도를 조절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만약가습기가없다면 잎사귀가 많은 식물을 실내에 두거나, 그릇에 숯과 물을 담아서 그늘에 놔두는 방법도 있다. 주기적으로 책상이나 커튼에 분무기로 물을 뿌리는 것도 좋다. 가정용 온습도계를 비치해서 관리해 보도록 하자.

마지막은 주기적으로 환기를 하는 것이다. 겨울철이 되면 추위 때문에 평소보다 창문을 열지 않게 된다. 하지만 오랜 시간 공기가 순환이 되지 않으면 먼지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바이러스들이 밀폐된 실내에서 빠르게 증식할 수 있다. 겨울철 환기는 하루에 2~3번이 적당하다. 한번 할 때 10분 정도로 하며, 대기의 움직임이 다소 적어 대기질이 나쁠 수도 있는 새벽과 밤보다는 대기 움직임이 활발한 아침이나 낮에 해주는 것이 더욱 좋다.

다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과연 환기를 하는 게 옳은 것인지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 그런 날에는 환기를 하더라도 짧게 여러 번 해주는 것이 좋다. 사무실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공간이라면 일정한 시간을 정해두고 규칙적으로 환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이 여느 때보다 중요하게 느껴지는 이유

최근 호흡기 감염질환인 코로나19로 환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창문을 활짝 열어 쾌적한 실내 공기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답답하고 오염된 공기로 가득한 실내에서 업무를 보고 휴식을 취한다면 업무 효율성도 떨어지고 건강에도 좋지 않다.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온, 습도, 뇌졸중가능지수 등 다양한 정보들을 적극 활용하고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 좀 더 쾌적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보도록 하자.



2021년 12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2021. 12. 6. ~ 상시운영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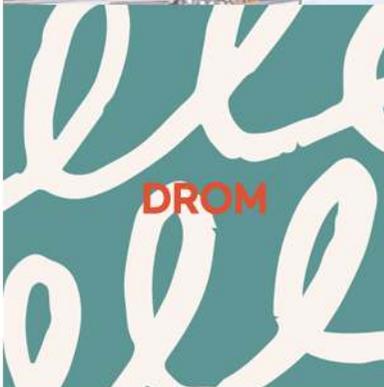
대전(청) 공구도서관 운영

대전지방기상청은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생활 속 실천 방안의 일환으로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구도서관을 운영 중이다. 공구도서관은 2층 기획운영과 창고에 생활 공구 품목 위주로 마련되어 있으며, 평일 9시~18시까지 상시 운영된다. 공구도서관 운영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공유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21. 12. 8.

제20차 대전지방기상청-천진시기상국 기상협력회의의 및 세미나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천진시기상국과의 상호기술교류 협력을 위해 제20차 기상협력회의를 12월 8일 영상으로 개최하였다. 양국은 기상기술교류 세미나를 통해 단기에보기술과 특별관측현황에 대한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앞으로 개최될 제21차 기상협력회의의 의제(해양 기상재해 모니터링 및 스마트시티 기상재해 관측)에 대한 합의를 작성하였다. 또한 협력회의에서 상호 우수하게 수행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하였다.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12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2021. 12. 13.

2021년 족집게 예보관 선정

대전지방기상청은 지역 기상 전문성 강화와 예보정확도 향상을 위해 매년 족집게 예보관(최우수, 우수예보팀)을 선정한다. 올해는 예보현업 4개팀을 대상으로 특보정확도 및 노력도를 구분한 평가뿐 아니라 지역예보기술개발 및 소통협력도, 각종 대회 입상자 가점 등 적극성, 성실성, 협력도를 고려한 평가가 이뤄졌다. 평가결과 2021년 최우수예보팀은 박종경, 유혜인 주무관, 우수예보팀은 김기봉, 윤영란 주무관이 선정되었다.



2021. 12. 16.

겨울철 위험기상 대응 4차 선행학습 세미나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계절별 위험기상현상을 심층 분석하고 예보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분기별로 선행학습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12월 16일에 개최한 제4차 선행학습 세미나에서는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대설 패턴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학습하고, 겨울철 발생 가능한 위험기상을 사전에 점검하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간 원격 강의를 병행하여 대면 방식을 최소화하고 학습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겨울철 방재 위험기상 대응력 향상에 기여하였다.



2021. 12. 17. ~ 22.

기상관측장비 안내판 제작 · 설치

대전지방기상청은 AWS(방재기상관측장비) 이전 지점인 오월드에 관측장비 안내판을 제작하여 설치하였다. 또한, 기존 장비 운영 지점인 대전, 세종, 홍성 등 7개 ASOS(종관기상관측장비) 지점에는 운고·운량계 장비 보호 및 주의 안내판을 제작하여 설치하였다. 이번 관측장비 안내판 제작 및 설치는 일반 국민의 기상관측에 대한 이해 증진은 물론, 기관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AWS(Automatic Weather Station): 방재기상관측장비. 국지적인 위험기상 현상을 실시간으로 감시

* ASOS(Automated Synoptic Observing System): 종관기상관측장비. 기상현상 관측 및 국제전문을 통한 자료 공유 등을 수행



2021. 12. 20.

바다날씨 뉴스 개선을 위한 지역방송사 소통 회의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지역방송사(대전MBC, KBS대전방송총국)를 찾아가 현재 전하고 있는 바다 날씨뉴스 개선을 위한 소통회의를 실시하였다. 지역방송사에서 날씨뉴스를 전할 때, 지역 해상 날씨를 알기 어렵다는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방송사를 찾아가 2021년 7월 세분화된 해상 예보구역에 대한 설명과 기상청이 발표하는 구역별 예보에 맞춰 방송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KBS는 12월 22일부터 해상 예보구역별 날씨 방송을 실시하였고, MBC는 2022년 상반기 날씨 방송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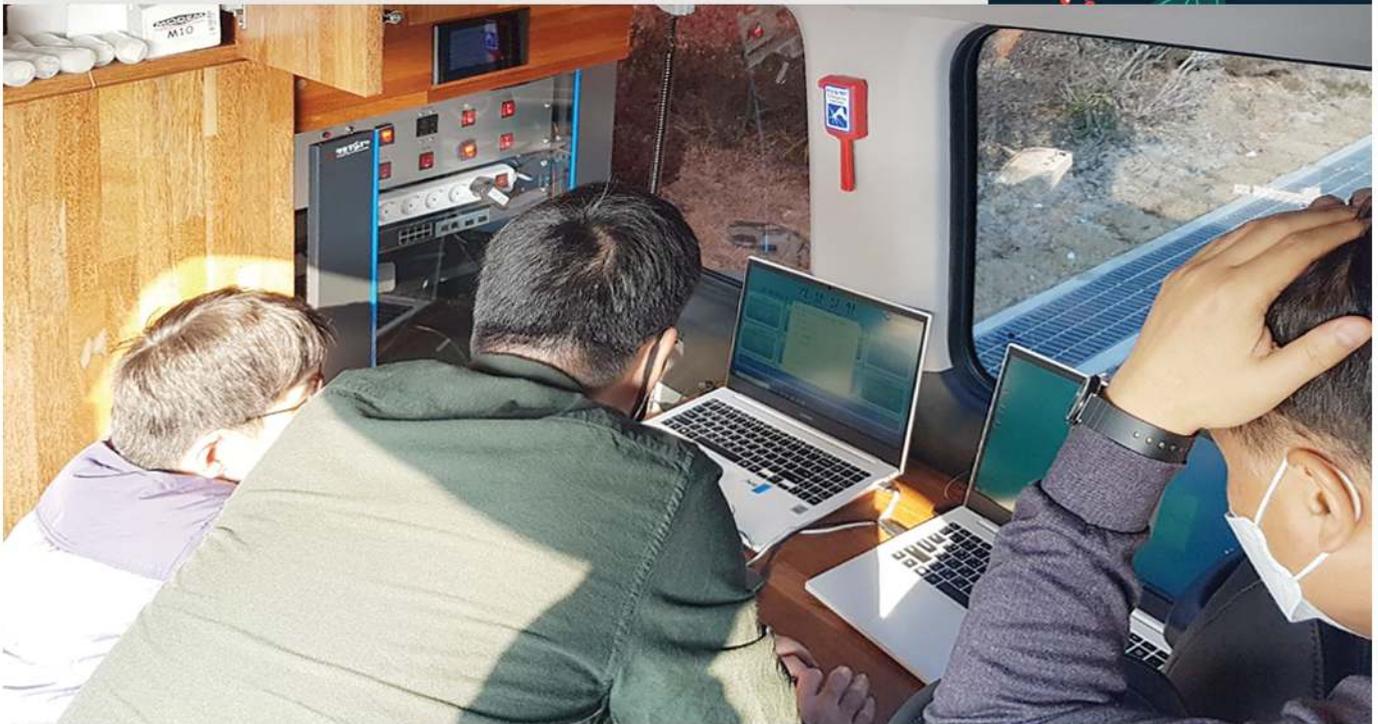
14-15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12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2021. 12. 20.~ 22.

대전(청) ASOS와 기상관측차량 비교관측 실시

대전지방기상청은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기상관측차량과 대전청 ASOS (종관기상관측장비) 간에 비교관측을 실시하였다. 기온, 습도, 기압, 풍향, 풍속 등 다섯 가지 기상요소에 대해 관측하고, 수집된 관측자료를 토대로 두 자료 간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 결과는 대전청 관측장비 장애 시 기상관측차량 자료로 대체 가능한 지와 대전ASOS 관측환경 개선 방안 검토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 12. 21., 2022. 1. 10.
기상관측차량 운영 교육 및 업무회의

대전지방기상청은 기상관측차량의 효율적인 운영과 향후 협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업무협력회의(부산청, 광주청) 및 현장교육(청주지청)을 실시하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기관 간 차량 운영 실적 및 노하우 공유 등으로 관측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고층기상관측 업무과정 시연 등의 현장교육으로 관측차량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16-17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12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2021. 12. 27., 2022. 1. 7.

탄소중립 중점(시범)학교 기후과학교육 운영

대전지방기상청은 학교의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 중점(시범)학교에 방문하여 기후과학교육을 운영하였다.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한 체험형 기후변화 협상게임을 진행하고, 기후변화과학의 기본적 이해, 진로분야와 연계한 기후변화 감시 업무를 소개하는 등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였다. 2022년은 탄소중립이 이제는 우리 생활과 가까워진 주제인 만큼 더욱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학생들과 함께 할 것이다.



2021. 12. 28.

지방예보 역량향상 프로그램 최종보고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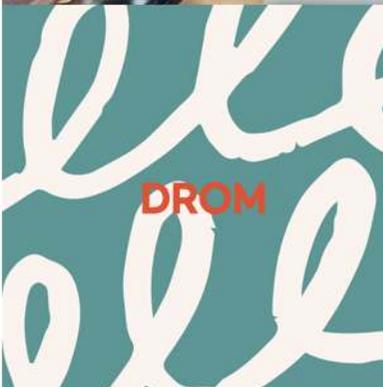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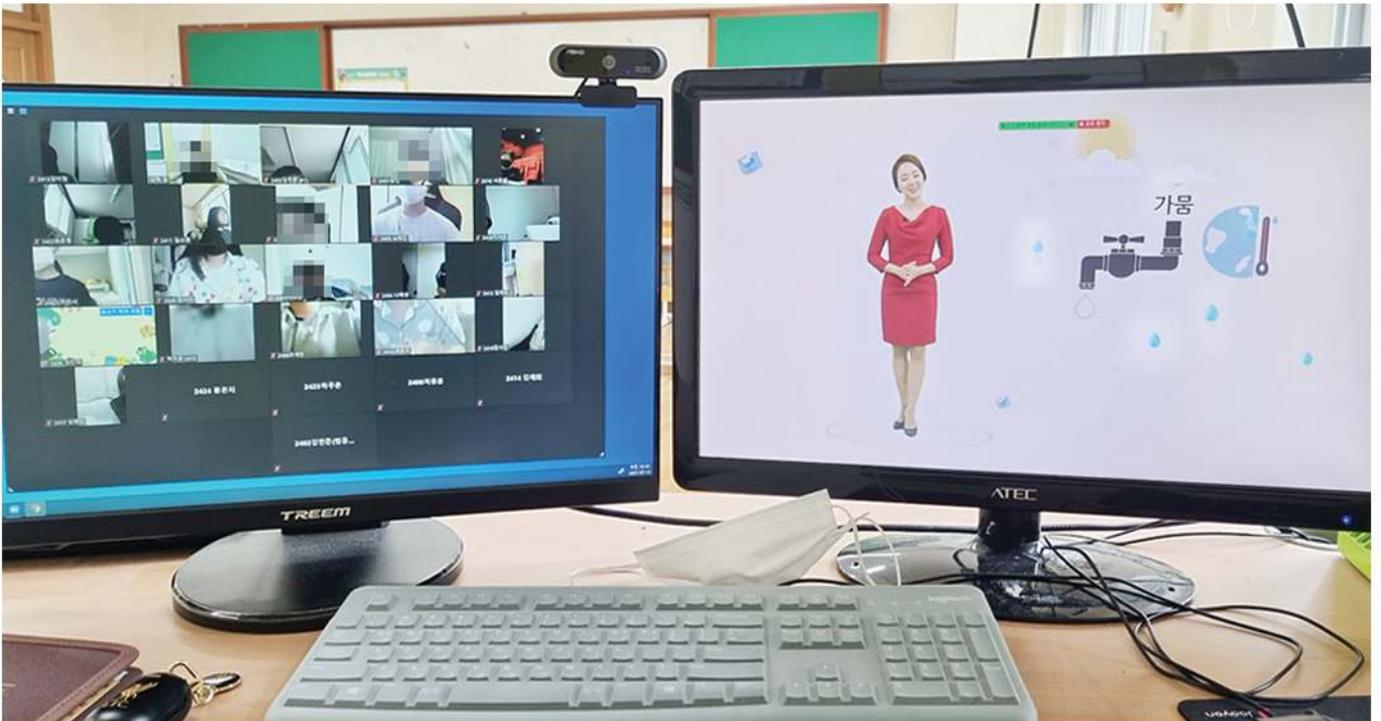
대전지방기상청은 12월 28일 ‘지방예보 역량향상 프로그램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최종보고회에서 충남권 특화 예보기술 전수를 위해 진행한 프로그램의 연간 운영 결과를 보고하고 ‘2021 표준교재 : 특보에센스’ 제작 완성본을 공유하였다. 또한, 차년도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교재 구성 방안과 프로그램 개선사항에 대한 토의를 진행함으로써 우리 지역 예보기술 역량향상을 위해 나아갈 방안을 모색하였다.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12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 2021. 12.

비대면 예보관 직업체험
「커리어 멘토」 운영



대전지방기상청은 진로체험 수요에 맞춰 미디어매체를 활용한 비대면 진로체험 교육을 운영하였다. 2021년 운영 결과, 대전·세종·충남지역 중학생 총 3,067명이 참가하였으며, 만족도조사 결과 66%가 '만족'으로 응답했고, 68%가 재참여 의사를 나타냈다. 2022년에는 블렌디드 러닝 방식 등을 도입하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2. 1. 5.

「탄소중립 주간(12. 6.~12. 10.)」 홍보 추진



DROM



대전지방기상청은 '탄소중립 실현' 목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참여 및 인식 제고를 위해 탄소중립 주간(12.6.~10.)기간에 집중 홍보를 추진하였다. 탄소중립점·시범학교를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디지털 탄소 다이어트 참여, 공구도서관 운영, 지역 내 플라스틱 정류장 리워드 운동 참여 및 탄소포인트제 가입 등을 적극 홍보하였다. 이를 통해 기상·기후변화의 과학적 이해를 돕고 기후위기 인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2022년 1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2022. 1. 10.

충남지역 시기반 대설 예측 기술개발 공동연구 점검회의 개최



DROM



대전지방기상청은 국립기상과학원과 협업으로 진행하는 「충남지역 시기반 대설 예측 기술개발 공동연구」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21년에 개발된 시기반 충남지역 강수유무 예측모델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22년에 추진될 영상기반 예측모델 개발 등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를 바탕으로 공동연구의 원활한 수행과 '22년에 내실 있는 연구결과가 도출되어 대전·세종·충남 지역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기상재해대응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2022. 1. 12.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중대재해 대응 현장점검 실시

대전지방기상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계약 상대자와 상호 간의 안전정보 공유를 위해 1월 12일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지역 기상과학 및 기후변화 이해확산을 위해 충남 내포지역에 건립 중인 기상과학관은 '21년에 건축 공사를 완료, '22년에 전시·시설물 제작·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진행 중인 전시·시설물 제작·설치 공정 현황과 안전관리 이행여부 및 안전관련 법규 준수에 대해 점검하였고, 위험요소 사전 발굴 및 제거를 위해 현장에서 중대재해 대응을 논의하였다.



2022. 1. 18. ~ 28.
2022년 대전청 신규 예보관 교육 운영

대전지방기상청은 지역 중심의 전문적인 예보인력 육성을 위해 전입자를 대상으로 신규예보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인사이동으로 대전, 충남지역으로 온 신규예보관을 대상으로 1월 18일부터 28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호우, 대설, 풍랑, 한파 등 예보기술과 충남지역의 지형적 특성 전수로 지역 위험기상의 이해를 높이고, 실습훈련 등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지역 전문 예보관 역량향상에 힘썼다.

2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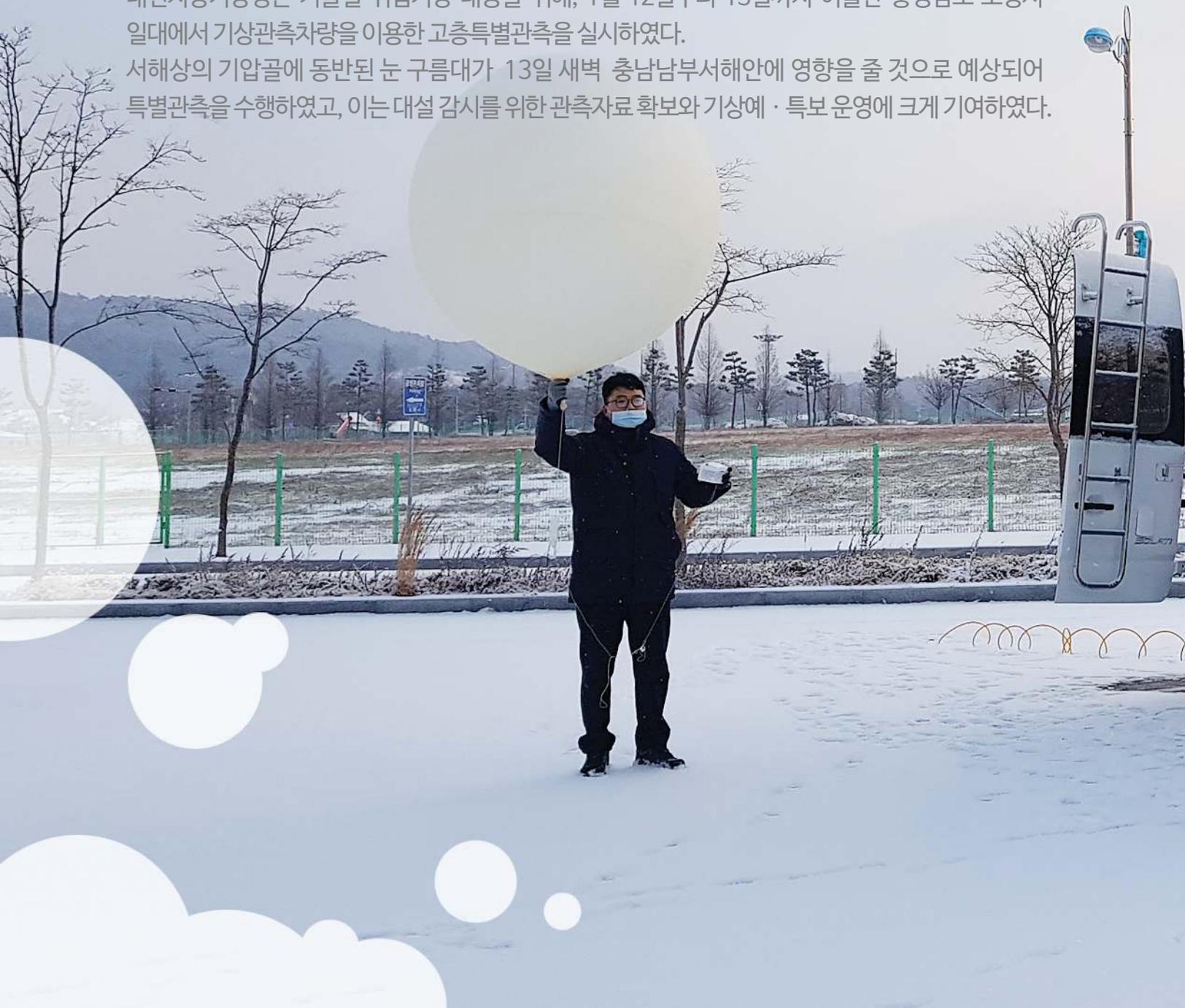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1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2022. 1. 12. ~ 13.

겨울철 위험기상대응(대설)감시 고층특별관측 실시

대전지방기상청은 겨울철 위험기상 대응을 위해, 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충청남도 보령시 일대에서 기상관측차량을 이용한 고층특별관측을 실시하였다.

서해상의 기압골에 동반된 눈 구름대가 13일 새벽 충남남부서해안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관측을 수행하였고, 이는 대설 감시를 위한 관측자료 확보와 기상예·특보 운영에 크게 기여하였다.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1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2022. 1. 21.

대전지역 방송사 날씨뉴스 관계자 초청 간담회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대전지역 방송사(KBS대전방송총국, 대전MBC, TBN대전교통방송) 날씨뉴스 관계자를 초청하여 올바른 날씨 뉴스 방송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를 통해 예보용어 및 개선된 해상 예보구역 등에 대한 설명과 기상청이 발표한 예보를 날씨 방송에서 다르게 표현하는 이유 및 문제점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정확한 기상정보 전달을 위해 방송사와의 SNS를 통한 실시간 소통뿐 아니라, 방송사에서는 기상청이 발표한 예보대로 방송하여 국민에게 위험기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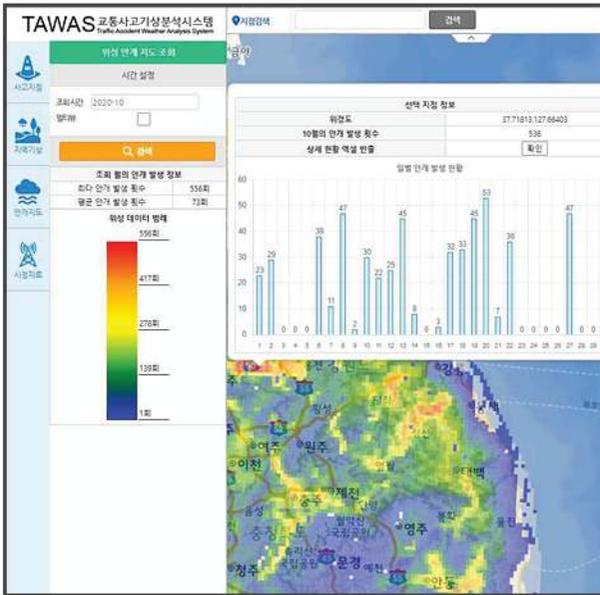
2022. 1. 21. ~ 28.

설 연휴 대비 기상관측장비 사전점검 실시

대전지방기상청은 2022년 설 연휴 기간 동안 기상관측장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할구역 내 ASOS 8개 지점을 사전점검하였다. 기상관측장비 및 전기·통신시설 정상 작동과 주변 시설 안정성 여부, 무인기상관측소 옥외함체 및 건물 관리 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을 통해 설 연휴 기간 관측장비의 장애 발생을 사전 방지할 수 있었다.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1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2022. 1. 26. 도로교통 사고분석 기상융합서비스 기술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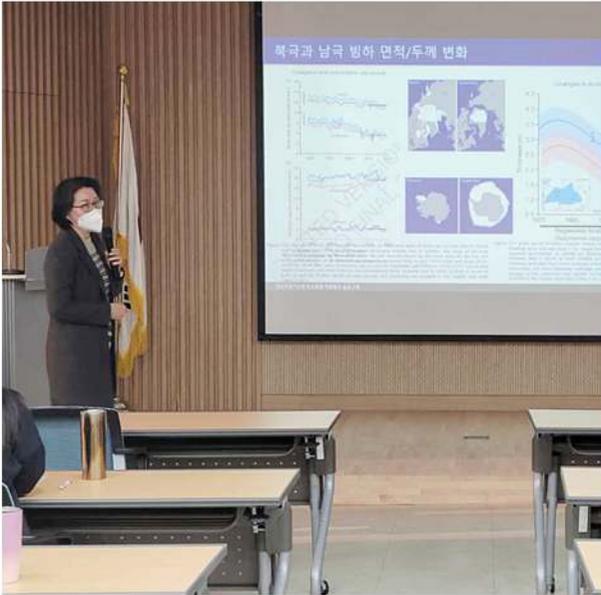
대전지방기상청은 ‘도로교통 사고분석을 위한 기상 융합서비스 개발’을 완료하여 도로교통공단에 기술 이전하였다. 이 사업은 2020년도 대전·세종·충남 대상으로 개발된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교통 사고 지점의 기상자료 수집·분석과 SI 기반 안개 상세지도 시스템을 통합하여 고도화하였다. 기상자료에 기반한 교통사고 원인 분석과 선제적 도로환경 개선사업에 활용되어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2. 1. 27. 2021년도 서해종합기상관측기지 운영보고서 발간

대전지방기상청은 서해종합기상관측기지(북격렬비도 소재)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1년도 운영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번 보고서에는 태양광 구조물 보강, 풍력발전기 추가설치 등 기지 운영 전반에 걸친 전력 및 관측 환경 개선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또한 2022년도에 추진될 노후 장비 및 시설물 교체 사업계획을 포함하였다.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2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2022. 2. 10. 탄소중립 내부 역량 강화 세미나 개최 기술이전

대전지방기상청은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탄소중립·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세미나를 개최하였다.

2월 10일 1차 세미나를 시작으로 총 6회 진행될 예정이며, 탄소중립·기후변화 인식에서부터 기후 변화시나리오, 우리들의 역할에 대한 논의 등을 주제로 선정하였다. 강화된 직원들의 역량으로 기후위기시대, 가치를 더하는 기상기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022. 2. 15. 우체국야외근로자 지원을 위한 한파 영향예보 서비스 현장 방문

대전지방기상청은 올해 1월부터 충청지방우정청과 협업으로 우체국야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파 영향예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상청에서 한파 영향예보를 발표하면 우체국 안전관리자 106명에게 전달되고, 안전관리자가 배달업무 담당자에게 전파한다. 이에, 현장에서의 서비스 활용도 파악을 위해 2월 15일에 충청지방우정청과 대전둔산우체국을 방문하여 의견수렴을 하였고, 대전(청) 자체 제작 한파 영향예보 리플릿 활용 등을 협의하였다. 이를 통해 한파로 인한 기상재해 피해 사전 대응과 야외근로자의 안전관리 지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8-29

관측기록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12

2021
December

- 12. 19. 식장산 관설 시작 (작년대비 6일 빠름, 평년대비 12일 늦음)
- 12. 17. 중순 일최저기온 최저 극값(순위) 경신
세종: 4위 - 9.0℃
- 12. 18. 중순 일최저기온 최저 극값(순위) 경신
세종: 1위 - 11.7℃, 보령: 3위 - 10.1℃, 홍성: 4위 - 10.3℃
- 12. 25. 하순 일최저기온 최저 극값(순위) 경신
세종: 5위 - 10.9℃
- 12. 26. 하순 일최저기온 최저 극값(순위) 경신
세종: 1위 - 14.0℃, 홍성: 4위 - 11.7℃, 대전: 5위 - 14.5℃
- 12. 27. 하순 일최저기온 최저 극값(순위) 경신
홍성: 3위 - 12.4℃, 세종: 3위 - 13.0℃

01

2022
January

- 01. 04. 일최소습도 최저 극값(순위) 경신
세종: 1위 10%
- 01. 13. 중순 일최대순간풍속 최고 극값(순위) 경신
부여: 3위 13.9m/s



02

2022
February

- 01. 18. 일최소습도 최저 극값(순위) 경신
세종: 3위 18%
- 01. 21. 일최소습도 최저 극값(순위) 경신
홍성: 1위 8%
- 02. 09. 일최소습도 최저 극값(순위) 경신
세종: 5위 13%
- 02. 12. 일최소습도 최저 극값(순위) 경신
세종: 4위 13%
- 02. 18. 일최소습도 최저 극값(순위) 경신
보령: 1위 10%, 서산: 1위 10%
홍성: 4위 12%

※ 홍성 : 예비관측일인 2015. 11. 03.부터 통계된 자료(정규관측: 2017. 11. 01.)

※ 세종 : 예비관측일인 2019. 04. 01.부터 통계된 자료(정규관측: 2020. 04. 01.)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 받는 기상청 전자민원

어떻게
달라졌나요?

<http://minwon.kma.go.kr>



인터넷 간편 신청, 발급

기상특보와 지진관측을 포함하여 모든 기상현상증명을 인터넷에서 무료 발급합니다.
(기상현상증명, 기상자료제공, 지진관측증명)

전자증명서(PDF) 다운로드

전자증명서(PDF)를 발급하며,
기존의 종이출력과 파일 다운로드 모두 가능합니다.



디지털원패스(정부통합ID) 로그인

다양한 정부사이트를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부통합 ID를 적용하였습니다.

플러그인 설치없는 웹 환경

플러그인 대체 방안을 마련하여
기존 Active X를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없는 민원 서식

증명서의 개인정보 표시 제한, 세로형 출력 등
민원 서식을 개선하였습니다.



무료로 발급 받으세요 알기쉬운 민원 신청방법

민원사무의 종류

1. 기상현상증명

법원, 경찰서, 보험회사 등 기관 및 단체의 법적 근거서류, 공사연기원 등 증빙용

2. 기상자료제공

학술·연구, 보고서 및 일지 작성 등 기록 및 분석용

기상청 전자민원 신청 순서

디지털원패스란, 다양한 서비스를 한번의 로그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부통합ID입니다.

1

회원가입(정부통합ID)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디지털원패스**에 회원가입하고 **기상청전자민원**을 이용기관으로 체크합니다.

2

로그인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디지털원패스ID**(정부통합ID)로 로그인합니다.

3

민원신청선택

홈페이지 상단의 **민원신청**을 선택합니다.

4

민원종류선택

기상현상증명, 기상자료제공, 지진 관측증명 중 내가 필요한 민원을 선택합니다.

5

신청용도선택

농업, 토목/건축, 법률/보험, 학술/연구 등 신청용도를 선택합니다.

6

기상요소선택

종류, 지점, 요소, 기간 선택을 순서대로 선택하고 **다음**버튼을 누릅니다.

7

신청내용확인

신청내용(신청용도, 종류, 요소, 지점, 기간)을 확인하고 **신청**버튼을 누릅니다

8

발급완료

민원보관함에서 **발급하기**를 클릭하여 전자증명서(PDF)를 다운로드 하거나 인쇄하면 완료!

대전지방기상청관할 지상관측지점 현황 (2022. 2. 현재)

1. ASOS(8소)

대전(133), 서산(129), 홍성(177), 천안(232), 보령(235), 부여(236), 금산(238), 세종(239)

2. AWS(40소)

오월드(642), 세천(643), 장동(648), 세종고운(494), 세종금남(496), 세종연서(611), 세종전의(629) 계룡(636), 계룡산(659), 공주(612), 유구(632), 정안(633), 논산(615), 연무(644), 당진(616), 신평(637) 호도(578), 삽시도(609), 대천항(657), 외연도(669), 양화(635), 대산(606), 서천(614), 춘장대(646) 아산(634), 송악(493), 예산(628), 원효봉(694), 성거(617), 청양(618), 경산(691), 근흥(607), 민리포(658) 북격렬비도(229), 태안(627), 안도(666), 옹도(667), 흥북(608), 흥성죽도(610), 서부(645)

※ 기상특보 발표구역은 해당광역시, 특별자치시, 시·군 단위로 발표함(기상법 예보업무규정 제8조 제2호)



Thank you for your affections and supports you have shown and contributed in the year of 2021.
I do wish we all the very best for 2022.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대전지방기상청]

(34142) 383, Daehak-ro, Yuseong-gu, Daejeon, Korea
TEL. +82-42-363-3599
Copyright © 2015 DROM. All rights reserved.